한국지역사회복지학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67, 2018. 12. 1. pp. 35-73
http://dx.doi.org/10.15300/jcw.2018.67.4.35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재완*

[요 약]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시설퇴소한 이후의 삶을 심층 분석하여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아동복지시설서비스 제공자, 시설입소아동, 시설퇴소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지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둘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이다. 세째,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의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시설퇴소아동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업진학, 자립준비기간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법정 연령을 초과한 시점부터 퇴소하여야 한다.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호 종료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주거지원,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대학입학금 150만원에서 실비지원까지 17시도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주거, 교육, 진로, 취업, 심리정서 지원 등을 위한 자원발굴, 연계와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과 함께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7개 시도 중 9개소에만 설치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개별 시도의 보호종료 등 요보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황별 실태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행정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진학, 취업 및 창업 당사자별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내 아동·청소년은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핍이 아동·청소년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설퇴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다(강현아 외, 2009; 배주미 외, 2011: 71).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자립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패러다임이 소극적 현금지원에서 적극적인 자립정책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이며(정익중, 2007), 특히 미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학교-직업사회 기회이행 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등의 법령 하에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배주미 외, 2011). 대표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 24개월간 거주하면서 다양한 자립생활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 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한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저소득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주택 건설을 통해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유스빌드(Youth Build)가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용되는 초기 비용의 지원이 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에서 일시 또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의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사회투자의 일원으로 빈곤대물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추진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산하 및 유관기관에 저소득취약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사업, 세이브더칠드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16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10,967개소에 아동은 28,234명이며, 자립지원시설은 12개소이며, 2016년 보호 종료 아동 중 27.6%가 진학, 50.5%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2017). 2017년 9월말 기준 보호종료 아동은 12,184명으로 가정위탁 1,372명, 아동양육시설 935명, 공동생활가정 119명 순이었다(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201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영향변인과 정책시사점과 더불어, 현재 시설퇴소 아동이 겪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제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시설입소아동 또는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있어 퇴소아동자립지원과 관련된 관련집단에 대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접근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퇴소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천현장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퇴소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과 퇴소이후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시설종사자, 시설아동, 퇴소아동 3집단에 대해 통합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의 발견과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개선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퇴소한 이후 삶을 심층 분석하여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퇴소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하지 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양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퇴소아동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입·퇴소 현황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2016년도 기준으로 10,967개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60개소, 공동생활가정 510개소, 그리고 가정위탁가정수 10,197가정, 자립지원시설 12개소이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아동양육시설 5,605명, 공동생활가정 1,514명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230명으로 전체 7,119명이다.

〈표 1〉 아동복지현황

구분	합계			아동양육시설2)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지원시설	
	시설수	아동수	종사자수1)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수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수	위탁가정수	아동수	개소수	인원
2014년	11,818	30,656	6,166	265	13,683	5,156	476	2,588	1,010	11,077	14,385	12	252
2015년	11,449	29,366	6,687	263	13,002	5,507	480	2,636	1,180	10,706	13,728	12	243
2016년	10,967	28,234	7,119	260	12,580	5,605	510	2,758	1,514	10,197	12,896	12	230

출처: 보건복지부, · 2015~2017 아동복지시설 현황·공동생활가정 현황·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주: 1)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 합계(가정위탁 제외) 2) 개인양육시설 포함

한편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전국적으로 2015년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5,749명이며, 퇴소한 아동은 5,988명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이유를 보면 학대 2,340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부) 959명, 비행가출부랑아 735명, 유기 472명, 가정해체 438명, 빈곤실직 43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소는 원가정복귀 2,270명, 타시설로 전원 1,643명, 취업자립 1,252명, 가정위탁 565명, 입양 215명이다.

〈표 2〉 시도별 입퇴소 현황(2015. 12. 31 기준)

구분	입소									퇴소							
	계	유기	미혼모(부)(혼외자 포함)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	가정해체	학대	전입	계	원가정복귀(연고자 인도 등)	취업자립	가정위탁	입양	전원		사망탈원
															아동시설	기타시설	
계	5,749	472	959	9	735	432	438	2,340	364	5,988	2,270	1,252	565	215	1,384	259	43
충남	184	18	3	-	1	29	16	101	16	166	65	62	5	-	27	6	1
서울	1,901	356	715	8	284	107	31	316	84	1,929	493	211	535	164	450	56	20
부산	187	11	4	-	1	16	14	117	24	277	68	134	-	3	47	21	4
대구	259	6	21	-	33	22	17	142	18	262	123	98	-	3	29	9	-
인천	252	1	5	-	-	15	48	176	7	238	102	52	5	-	66	13	-
광주	237	2	39	-	1	55	18	91	31	223	71	47	4	3	73	24	1
대전	277	3	4	-	196	11	6	53	4	275	219	33	1	-	13	8	1
울산	81	-	1	-	-	6	9	64	1	83	57	12	-	-	9	5	-
세종	8	-	-	-	-	5	1	-	2	13	8	2	-	-	3	-	-
경기	903	55	35	-	64	46	140	507	56	973	375	187	6	21	350	32	2
강원	209	1	19	-	2	26	21	123	17	210	88	26	7	3	74	12	-
충북	173	3	20	-	62	17	21	40	10	213	87	60	-	16	28	15	7
전북	436	6	16	1	83	12	19	281	18	422	216	68	-	-	115	19	4
전남	289	2	54	-	6	40	31	116	40	302	134	89	1	2	58	18	-
경북	136	-	4	-	-	3	22	91	16	173	68	81	-	-	20	4	-
경남	151	6	8	-	2	20	17	84	14	164	62	76	1	-	12	10	3
제주	66	2	11	-	-	2	7	38	6	65	34	14	-	-	10	7	-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자립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실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아동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구분된다. 아동자립

지원관련 사항은 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응훈련비지원, 간식비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지원 등이 있다.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정부지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자립지원 관련 사업(충남)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방법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45명 (도비 30%/ 시군비 70%)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계좌에 입금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생활시설 아동(미취학아동 제외)	601명 (도비 30%/ 시군비 70%)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간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763명 (도비30% / 시군비 70%)	간식비 지원	1인당 일 2천원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만15-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345명 (도비30% / 시군비 70%)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중 운전면허취득 가능 연령자	62명 (도비 30%/ 시군비 70%)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26명 (도비 30%/ 시군비 70%)	참고서 구입비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학원수강비	생활시설 중	535명	아동 특성에 맞는	1인당 연간 70만원이내

지원	초중고 재학생	(도비 30%/ 시군비 70%)	학원수강을 위한 비용지원	
시설아동 독서활동비 지원	생활시설	38개소(83명)(도비 30%/ 시군비 70%)	시설 내 독서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1개소당 연간 60만원 이내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 6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
아동자립증진 지원	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1개소, 20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리·정서지원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지원 등	도 직접 집행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	생활시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7,350명 (도비 30%/ 시군비 70%)	문화생활,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아동발달지원계좌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과중위소득 40% 소득수준아동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아동의 자립지원(경제적 지원)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

출처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8) 재구성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매칭하여 월 4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즉,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과 중위소득 40% 소득수준(생계, 의료

급여수급가구) 아동으로 지원규모는 2,339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부담하며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하는 것이다.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세주택지원이 있다.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주택소유여부)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의 만료시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연계가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이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이다. 지원절차는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를 통보한다.

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을 대상으로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립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당 5백만원 1회 지원한다.

사회적응훈련비 지원은 생활시설 아동(미취학아동 제외)에게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한다. 1인당 월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이다.

간식비지원은 생활시설아동에게 1인당 일 2천원을 제공하며,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으로 만15세-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해 1인당 연간 1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또한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은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고서 구입비로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원수강비지원으로 1인당 연간 7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아동 독서활동비지원으로 1개소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며, 정서함양프로그램지원으로 문화생활 및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내 지원한다. 또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충남도)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자립증진지원으로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1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자립지원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수탁운영)이 있으며 시·도단위에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은 2012년 아동복지법 내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아동복지법제38조 자립지원, 동법 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중앙사업단인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의 설치목적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주거, 진로, 경제생활 등의 자립준비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주요기능은 아동자립교육 및 자립체험훈련, 자립지원과 아동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역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및 운영평가,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과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아동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DB) 운영 및 모니터링, 아동자립지원사업 홍보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한편, 충청남도의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충남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6천만원이다. 주요사업은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그리고 자립역량강화교육이다. 자립체험관 운영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중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자립후 생활체험, 퇴소 전 자립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립체험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1, 2단계는 아동복지시설내 별도의 자립체험관에서 진행하고 3단계는 아동복지시설 외부자립체험관(2개소)에서 실시한다. 3단계 자립생활체험은 외부의 별도 공간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체험해 보고 자립준비하는 과정이다.

3. 선행연구 검토

기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퇴소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연구의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규필, 정경은(2016)은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을 통해 자립준비는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학업상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내 부적응 청소년보다 준

비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소속집단별로는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용환(2003)은 충남도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자립을 위한 준비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용율이 전국 평균 34.64%보다 낮은 26.67%임을 제시하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15년이 지난 연구이며, 구체적 대안 제시 역시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2011)은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72명의 델파이 조사에서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 중요도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립지원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실무자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자립정착금지원 개선, 주거공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체계구축강화, 심리정서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 강화, 사회기술 역량 강화 경제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 아동청소년의 시설퇴소 전후의 상태에 따른 대안제시의 구체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실시한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서는 퇴소 아동의 문제점으로 주거의 불안정성, 진학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높은 불안정한 취업상태, 빈곤계층으로의 진입 가능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 불충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비, 자립지원금의 표준화와 생활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 주거환경구축을 위한 자립생활관의 기능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라는 측면에서 문제점과 욕구 이를 통한 대안 제시가 주목할 만한 보고서이며, 최근에는 제시된 개선방안 중 일부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자조집단 형성 등의 개선방안은 여전히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유영림, 양영미, 박미현(2015)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하에 생애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퇴소 청소년 7명을 이야기식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져온 삶의 무게, 타인에 의한 자립에 자력을 더함, 자립의 기쁨, 홀로서기의 외로움의 상위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정책, 퇴소 전 원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원가족 없는 시설퇴소 자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 체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양적 조사방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퇴소 청소년의 직업상태, 욕구분석과 유형에 따른 대안의 매칭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의 편차 개선, 자립정착금 사용 관리 교육 및 지도 강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수립 시 정착금 사용에 대한 상담, 지도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안정된 삶을 하고 있는 경우(공무원, 의료기관 등)에는 사후관리의 조기종결 하용방안 마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시스템 관리 보완, 대학 진학 후 휴학 시 보호기간 연장 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016.1.25.).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설퇴소 아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2016)는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에서 전국단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중 종결 이후 5년 이내 아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일반사항,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경제, 주거, 진학, 취업현황 및 건강, 심리사회적 현황이다. 조사결과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제시하고 있으며, 자립종결 기간 5년의 사후관리에 대해 기간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호종결이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 재정관리 지식부족 등의 순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자금 마련에서 정부기관 활용이 2012년에 6.6%에서 2016년 33.9%로 5.1배 증가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경제현황에서 수급자인 경우가 28.2%로 낮은 수준이지만, 월평균 소득이 123만원이었으며, 당시 최저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25일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최저소득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각종 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월평균 소비액이 138만원 수준으로 소득 대비 지출에서 약 15만원의 부족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이나 소득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가 42.8%로 다른 학생진학율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취업유형이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 진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아르바이트, 학교장학금 등의 혜택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퇴소 아동이 취업중인 경우는 51.1%이며, 48.9%가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취업자 중 72.7%가 정규직, 27.3%가 비정규직이며, 80.3%가 직업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85.9%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립생활기술에 대해서는 자기보호기술과 사회적기술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나 돈관리기술에서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여 돈관리기술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심리적 상태에서는 자존감과 유능감이 다소 낮고, 나아가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우울,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는 원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19.3%이며, 보호기관과도 24.2%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립지원 강화방안으로는 보호종결 전 자립수준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자립기술을 습득케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연차가 증가할수록 심리적부담감, 경제적어려움 등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사회적 지지망 확대, 공식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지원 제도개선과 공공지원 확대, 그리고 자기계발지원 확대 및 취업지원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용환(2016)은 보호종결 이후 지원기관별 자립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립지원서비스 유형은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지원이며, 이 중 정부와 지자체와 아동복지시설, 민간, 아동자립지원단의 직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가 보호종결 대상자들의 취업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생활비 지원이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방법이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생활비 지원을 강화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퇴소아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퇴소 아동의 자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미래에 대한 희망수준, 타인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생활 기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진로장벽이 낮을 경우에 역시 자립생활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입소 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지원함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목표 제시, 지지체계 연결, 진로장벽을 낮추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시 퇴소 시 후원 우선 연결과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전문가를 통한 재정관리 교육, 지속적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효과적 운영 등이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사점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선행연구, 각종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저소득 계층이며 빈곤층인 시설아동에 대한 빈곤이론을 고찰하여 이론적 접근 전략을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관련 사례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독특성과 복잡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론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사례와 관련된 주체들의 상황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가지는 모든 변수를 제어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뷰와 관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정 현상의 관찰과 분석시 유용하다. 즉, 사례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사실의 확인보다는 발견에 있으며 특정 변수보다는 상황에,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다. 사례연구는 맥락속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하나의 경계지어진 체계나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탐색은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시설입소아동,

시설퇴소아동이 경험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4명, 시설입소아동 5명, 시설퇴소아동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자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장 3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동 거주시설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였으며, 퇴소 아동 자립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아동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다. 참여자들은 오직 아동거주 시설만 근무하였으며 아동 보호와 자립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참여자 중 1명은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로서 아동거주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소아동은 모두 5명(여학생 4명, 남학생 1명)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현재 가족은 무연고가 2명이며 주로 가정이 해체된 부나 모 그리고 오빠가 있다. 시설에 입소할 때 연령을 보면, 영유아기 때인 4세 이하에서 청소년기인 13세 또는 14세에도 입소하였으며 이들의 시설에 거주한 기간은 최소 5년 8개월부터 최대 16년까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인 퇴소아동은 5명으로 여자 3명, 남자 2명이다. 이들은 21세에서 25세로 모두 20대 초중반이다. 학력은 고졸 2명 대학 재학 1명, 전문대 졸 2명이다. 이들의 가족은 무연고에서부터 다양한데,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결손 가정이며 과거 시설입소 연령은 3세부터 11세 까지 다양하고 시설 거주 기간도 최소 7년부터 최대 19년이다.

2. 심층면접조사 내용

시설종사와 입소아동 그리고 퇴소아동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면접조사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내용

구분	시설종사자(시설장, 직원 등)	입소아동	퇴소아동
조사 내용	- 아동의 입소사유 및 특성, 퇴소아동 실태 - 아동의 시설생활적응 및 어려운 점 - 퇴소전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효과성 - 퇴소전 자립생활에 대한 아동의 인식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자원 연계 현황 - 퇴소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 최소이후 주거와 취업의 만족도 및 어려운 점 - 퇴소 아동과의 교류정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여부 및 어려운 점 - 기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사항과 필요한 지원방안	- 일반적 현황 : 성별, 연령, 학령, 가족관계, 시설거주기간 - 시설 입소경위 : 입소사유(상황), 입소시 연령 및 입소기간, 동반입소 형제, 자매 유무 등 - 시설 입소후 생활만족도 : 서설거주시 어려운 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어려움/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 및 학업성취도/ 경제활동, 용돈수준과 학교생활비용과 만족도 등- 자립생활교육 및 준비 : 자립에 대한 인식, 시설거주시 자립준비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참여정도와 만족도, 고등학교에서 취업관련 교육의 내용과 만족도/ 자격증 취득여부 및 자격증 취득 희망분야 등/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외부자원 연계 및 만족도/ 자립생활교육 및 준비의 욕구/ 미래의 희망하는 직업 또는 꿈 등	- 일반적 현황 : 성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시설거주기간, 퇴소기간 - 시설입소경위 : 입소사유, 입소시 연령, 입소기간, 동반입소 형제, 자매유무 - 퇴소이후 생활실태 : 주거형태 및 상황과 만족도, 어려운점/ 취업유형, 취업기간, 취업에 대한 만족도 및 어려운 점, 대학진학(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어려운 점 등/ 소득수준, 국가로부터 지원여부 및 내용/ 용돈수준/ 아르바이트 경험 및 수입정도/ 퇴소전 시설과의 연락 및 교류정도/ 친권자 및 가족 등과 교류정도 등/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퇴소이후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 - 자립실태에 관한 사항 : 자립에 대한 인식/ 진학후, 취업후 자립생활에 어려운 점/ 취업, 진학 등에 대한 자발적 준비 또는 노력정도/ 경제적, 정서적 등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퇴소전 자립지원프로그램 도움정도/ 현재 취득한 자격증 종류 및 취득준비중인 자격증 종류/ 자립시 필요사항/ 희망하는 직업 및 꿈 등

3. 면접조사방법

심층인터뷰조사대상자 선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은 시설에서 10년 이상 시설에 근무하거나 30

넌 가까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한 명은 실제로 자립지원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전화로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으면,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전화로 보완하고 재방문하였다. 한 명단 인터뷰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둘째, 시설입소아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립생활 체험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이다. 이들은 자립을 2-3년 후면 퇴소해야 하는 아동이고, 자립에 대하여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는 서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외부 연구자가 시설 아동을 만나 인터뷰 하면 거부감이 있어서 제대로 응답이 나오지 않을 위험이 있고,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면 인터뷰는 시설장이나 자립지원담당 교사에게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시설에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후 취합하였다. 서면 인터뷰 자료를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시설에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연구에 동의하는 아동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다.

셋째, 시설퇴소 아동의 참여 대상자 선정은 시설에서 현재 퇴소하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퇴소 아동이다. 이들은 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을 하였으며, 스스로 자립과 사회 생활을 경험하여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외부 연구자가 퇴소 아동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면 인터뷰는 시설장이나 자립지원담당 교사에게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시설에 방문하거나 자택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조사한 후 취합하였다. 서면 인터뷰 자료를 퇴소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시설장이나 담당 교사가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연구에 동의하는 퇴소 아동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0일 15일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녹음으로 하였고, 현장에서 메모를 활용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전체를 풀어 쓴 후 다시 이를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

용을 연구자들이 한 줄씩 읽으면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과 핵심 단어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을 거쳤으며, 대상자들의 언어와 표현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한 후 추출한 문장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미 확인을 받았다.

Ⅳ. 시설 퇴소전· 퇴소후 생활 및 자립지원 실태 분석 결과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 아동의 실태와 입소아동의 특성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사유와 실태에 대한 인터뷰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들은 주로 아동학대를 받아온 아동들이었다. 아동이 학대를 당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72시간 일시 보호하고 그러고 난 다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70-80%의 아동이 학대를 당해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로 아동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때문에 지금의 아동 거주시설은 과거 '고아'라고 불리던 부모 없는 아이들은 없고 부모가 있되 부모들이 보호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시설로 들어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서울에서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들이 충남까지 오고 있었다. 본 연구진이 ○○시설을 방문했을 시에도 여자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베이비 박스를 통해 시설로 들어 온 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설로 들어온 아이들은 호적에 올리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시설에 입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때는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시설보다 가정 위탁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 보호가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아동이 시설에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우선 부모로부터 격리되었는데, 그 격리가 주로 학대나 가정 결손이라서 입소하는 순간부터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더구나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는 시설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시설 아동 중 상당수는 ADHD, 분노조절장애, 학습능력장애 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아동들인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부터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와 연락이 자주 안 되는 아이들은 시설이나 학교에서도 일탈의 비율이 높아 부모의 존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설 아동들은 단체 생활 가운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 취업 등에 있어 계획적이거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대체로 생활 의욕이나 학습 의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가서도 자격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을 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시설 생활에 젖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서 나오는 정착금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우선 쓰고 보자는 심리가 많았다.

2. 시설거주시(시설 퇴소 전) 자립생활실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대체로 생활 의욕이나 학습 의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가서도 자격증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을 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시설 생활에 익숙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설에서 나오는 정착금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우선 쓰고 보자는 심리가 많았다.

그리고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시설 아이들이라 하여 따돌림을 많이 당하였다. 이 아이들이 주로 학대 피해로 시설에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다, 학교에서는 시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따돌림과 폭력이 악순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지급해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반 가정 아동들과 비교를 자주 하게 되고, 그들은 풍족한 것 같은데, 시설 아동은 늘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지출하는 핸드폰 요금, 군것질 등 지출하는 곳이 많았다. 그렇지만 저축을 꾸준히 하는 아동도 있었다. 저축은 시설에서 정기 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어 저축을 하고 있었다.

한편 친구관계는 원만하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아동들이 사귀는 친구의 숫자를 보면 4명 이하로 매우 소규모였다. 친구들도 시설 친구들보다는 학교친구를 더 친하게 여기고 있었다. 시설의 특성상 시설의 규정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무한정 어울릴 수 없고 친구를 쉽게 집(시설)로 데려 올 수 없으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다.

아동이 인식하는 자립은 스스로 생활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고 힘들더라고 감내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에서 시행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특히 자립생활과 체험, 캠프, 디딤씨앗통장 등이 만족한 프로그램이라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이 자립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고등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장래를 위해 간호조무사, 캐드, 측량 등을 배우고 있었다. 시설에서도 취업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립생활지원과 지역사회연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아동 거주 시설은 어쩌면 섬과 같은 존재이다. 연구자가 방문한 3개 시설 중 2개 시설은 근린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역 사회와 거리감을 갖고 있다. 물론 사안 별로 지역 사회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자원봉사, 상호 방문 등을 하고 있었다.

취업과 관련하여 시설장들은 지역 사회에 미안한 입장이었다. 아동들이 취업을 하고서 꾸준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만두기 때문이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의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기업도 자원봉사에는 적극적이지만 취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 아동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거주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50여명 이상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다.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가 있고 많은 원생이 생활하다 보니 사생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설에서 산다는 것이 사회적인

낙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시설에 적응하는 것 또한 힘들지만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자립생활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금전교육을 원하였다. 아마 선배들이 금전 관리를 잘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지 않았나 싶다. 또 어린 나이에 자립지원금, 후원금, 저축한 돈 등 갑자기 많은 액수의 금전을 가지고 있으며 금전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전 교육을 강하게 원하였다. 그 다음은 정서 지원, 취업교육, 주택 지원 등이었다.

3. 아동복지시설 퇴소이후 자립생활 실태

시설퇴소 이후 원가정과는 거의 결합하지 않고 연락도 안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아마도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학대 및 결손가정 등)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막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인다. 시설에서 나간다고 하여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매우 적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취업, 진학 및 창업 등의 실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소이후에는 시설과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려고 하였다. 본인이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애써 숨기면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설과 연락을 자주 안한다고 하였다.

퇴소이후 취업, 창업, 진학 등은 주로 인터넷, 구인 광고 등 정보 등을 이용하였고, 시설의 선생님, 전 직장에서 안면 있는 사람 등 인맥을 활용하였다.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하였고, 본인이 활용 가능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여 정보를 취업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퇴소 아동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소 후에 취업은 주로 생산직으로 하였다. 이들이 저학력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길이었다.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였어도 꾸준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도립대학에서 혜택을 준다하여도 굳이 도립대학을 선호하지 않았다. 인지도도 낮고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

시설 퇴소 이후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시설에 있을 때 자립지원 프로

그램 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한다 해도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두렵다. 또 어린 나이이기도 하다. 또 시설에서 나가면 지원금과 후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는 부모나 친인척이 지원금을 노리고 접근하여 그걸 빼앗아 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취업, 결혼, 이사 등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 장사하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거상태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주로 원룸에서 많이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하였다. 주거를 자주 옮기니까 시설과 연락도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LH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현재의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LH전세 주택지원 제도를 통하여 월세나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때문에 퇴소 후 정착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취업 혹은 대학진학이후의 어려움으로 시설에서만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회사 적응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에서 수동적으로 의식주를 받다가 사회에서는 거의 혼자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금전 관리, 사회생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지원금, 후원금 등 갑자기 큰 돈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 수준은 1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전문대 졸업자의 수준이다. 청년 실업이 심하기 때문에 시설 아동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퇴소을 하였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노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퇴소이후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속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2-3명의 매우 소수의 친구들이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친한 친구만 사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시설 아동들은 사람에게 정을 쉽게 주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소이후 시설과의 연락이나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퇴소아동들은 자신이

생활한 시설과 연락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었다. 본인이 시설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다. 혹시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시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퇴소 아동은 본인이 필요하면 시설을 방문하여 용건을 보거나 하지 일부러 시설을 방문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퇴소전 자립지원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좀 더 열심히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퇴소아동들은 본인 스스로 정신 무장을 잘해야 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 준비, 정보 획득을 하면 빠르게 자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Ⅴ.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지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둘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이다. 세째,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이다.

〈표 5〉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퇴소전, 퇴소이후)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자립지원방안이다. 현재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3가지로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다.

〈표 5〉 현행 퇴소아동 자립지원과 신규 지원 방안

<table>
<tr><th>시설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th><th>퇴소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th><th colspan="2">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신규)</th></tr>
<tr><td>1.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td><td rowspan="5">1.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퇴소,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 지원방법 :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계좌에 입금</td><td rowspan="4">1. 사회적 지원 활성화</td><td>- 지지체계 강화</td></tr>
<tr><td rowspan="2">2.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td><td rowspan="2">2.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 내용 : 시설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자로 20세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1-2%) 부담.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임. 지원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지원절차 :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 통보</td><td>-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td></tr>
<tr><td>-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td></tr>
<tr><td>3.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원내용 :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td><td rowspan="3">2. 경제적 지원 활성화</td><td>- 재정관리교육 강화</td></tr>
<tr><td>4.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지원내용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td><td>-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 정착지원금 제공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td></tr>
<tr><td>5. 아동자립증진지원
- 지원내용 :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td><td rowspan="2">3. 자립 프로그램 활성화</td><td>-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 자립체험 프로그램</td></tr>
</table>

심리·정서지원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지원 등 - 지원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2억지원(도비)			다양화 -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의 활용
6. 아동발달지원계좌 - 지원내용 : 아동의 자립지원(경제적 지원) - 지원방법 :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2.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 - 아동적립상황에 따라 적립금액 차이발생		
7.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 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자립역량강화교육			

1. 사회적 지원 방안

1) 지지체계 강화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인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퇴소이후 자립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함께 사회속에 던져진 느낌, 외로움, 두려움을 더 큰 자립의 어려움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2015). 이러한 지적은 서비스제공자, 입소아동, 퇴소아동 모두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또,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좌우한다. 부모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지지체계가 있어서인지 보호하기가 좀 수월하다. 물론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있더라도 연락을 끊고 사는 아이들은 가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A참여자1)

따라서 사회적 또는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하며 지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도 원가족과의 애착, 공감대 형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2015;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하되, 원가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후원가능한 원가족 찾기 및 연계, 교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지와 지원이 가능한 가족이 부족하기는 하나 원가족이 가지는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시설퇴소 아동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가족 중에 교류가 가능하고 지원이나 지지가 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 퇴소 전부터 전화교류, 명절방문 등을 통해 원가족과 퇴소 전 아동의 관계와 정서적 교감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지원단 사업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아동들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감 있게 자신도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같은 시설 출신 선배나 지역 출신 선배를 멘토로 연결하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중앙협회에서 운영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것이 있다. 시설 출신 아동들로 구성한 서포터즈다. 이 서포터즈가 시설을 나가고 나서 생활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등에서 모델이 되어 주고 있다. 언니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하면 후배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취업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큰 도움이 안된다. 아이들의 호응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A참여자 2)

퇴소 아동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또는 심리적 요인 중 미래에 대한 희망 요인이 있으며,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정하, 박수지, 2017). 특히 입소, 퇴소 아동 모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두려움과 포부를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시설출신 퇴소아동을 멘토로, 시설내 퇴소를 준비하는 아동을 멘티로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와 인맥활용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로 활동하는 퇴소 아동에게는 10만원정도의 후원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받은 후원금으로

멘티 격려금으로 1만원정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면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자료와 알리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1] 이는 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용과 이용절차 등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봉착하거나 공공부조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상황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표화하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 퇴소하게 되면 자신이 사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다. 주소 이전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A 참여자 1)

이처럼 퇴소아동이 부딪칠 수 있는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을 쉬운 용어와 만화로 만들어 퇴소 아동에게 배포하고,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 지원 방안

1) 재정관리 교육 강화

정착금, 후원금 등이 지원된 퇴소아동 중 상당수가 효율적으로 금전을 관리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절실히 깨닫는 것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경제관념 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을 사후에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돈으로 실손 보험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돈 관리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 할 수 없다. 많은 아이들이 쉽게 돈을 써버려서 월세에서 전세로 가기 힘들다. (A참여자 4)

1)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로, 지자체의 경우 복지알리미, 희망수첩, 복지포털 등의 용어와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고 있음

특히, 퇴소 아동의 경우 금전 관리와 저축 또는 효율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절제와 저축을 통한 희망의 미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금전 관리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약 50만원 수준) 지출할 경우 조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의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금융 자문인을 퇴소 전 연결하여 정보와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고, 이후 50만원이상 지출 시 사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듣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 취업 후 돈관리가 가장 어려웠으며 그동안 써보지 못한 돈을 쓰려니 겁도 나고 절제가 되지 않아 많이 저축하지 못하고 거의 쓴다는게 어려웠습니다. (C참여자 1)

시설 서비스 제공자 역시 무계획적인 정착금 사용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조언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후견인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빈곤이론에 근거(선발이론,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 등)에 빈곤아동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문화이론에 근거하여 조기취학프로그램(헤드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선발이론이나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에 근거한 무상교육,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 저소득 대학생 우선선발 제도 등이 있다.

>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인 한 반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의욕이 없다고 봐야한다. 이 아이들은 오래 앉아 공부하지 못한다. 공부도 습관인데, 이 아이들은 공부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 가면 엎드려 자기나 하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아이들은 노는

것과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공부에는 흥미가 없다. (A참여자 2)

취업기술 즉, 면접 방법. 이력서 작성 등을 알려 주면 좋겠다. 요즘은 이력서를 잘 써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학교를 한번 졸업 하면 돌아갈수 없다. (B참여자 5)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기업 우선채용 등 기존의 저소득층 우선지원에 더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하여 채용 비율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4)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처리

정착지원금의 지원을 퇴소 전 지급하여 퇴소 즉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가능하도록 절차간소화 및 신속처리 강화가 필요하다. 퇴소 후에 행정처리가 되어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립지원정착금, 보증금과 개인후원금으로 사용하여 월세집을 구입하였다.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때까지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설에서 지냈다. 퇴소 후 바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정착금지급이 가능하면 좋겠다. (B참여자 4)

따라서 모든 행정적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가 모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1)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지원 프로그램 적극성, 자발성 강화를 위해 참여 포인트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로 후원금 차등지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 아동의 특성상 무기력과 무계획성이 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현금 인센티브, 정서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대학과 함께 바우처를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못하고 있다. 직업 체험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바우처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체험해서 애들이 피로해서 그런가 하고 프로그램을 줄였더니, 여전히 참여율이 낮다. 의미가 있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참여자 2)

아동들이 시설에 생활할 때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퇴소 후에는 그 유성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설에 있을 때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2)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퇴소한 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생활 체험은 천안과 금산에서 원룸을 임대하여 체험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체험은 본인이 혼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퇴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선배의 집에서 5박 6일 정도 생활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배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선배로부터 자립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자립 시 어려운 점과 극복 과정, 자립에 도움이 되었던 것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퇴소 아동들이 시설과 소원해 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시설에서 자립은 자신의 가정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남의 13개 시설에서 아동을 모아서 1차, 2차 독립 생활을 연습시키고 있다. 1차는 시설에서 2차는 원룸을 임대해서 스스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참여자 1)

3)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시설에서 프로그램에도 아동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에도 지속성을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기업에 어렵게 부탁하여 취업을 성공해 놔도 얼마 못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 기업에 취업 부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해서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고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있어서 사장님들한테 취업 부탁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렵게 취업 부탁하여 직장에 가게 해 놓으면 며칠 다니다가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그만두니 미안해서 부탁할 수 가 없다. (A참여자 1)

퇴소 후를 위해 많은 직업 체험을 하더라고 재미가 없으면 그만 두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시설 아동들도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학교 내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장원, 식당, 카센터, 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소)과 업무 협약을 하여 이러한 장소에서 직업을 체험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이런 데서 체험을 하면 일정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임상심리사 채용 비용 합리적 사용

충남도내 대학의 협조를 받아 아동들의 심리 검사를 한 결과 정상군이 17%이고 나머지는 관심군 37% 그리고 취약군 46%일 정도로 심리 문제가 심각하다.

> 올해 도의 지원을 받아 충남 시설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심리 검사를 한적 있다. 이 중 정상군 17%, 관심군 37%, 취약군 46%였다. 관심군에서 정상군으로 갈 수있다. 취약군에 있는 아이들은 매우 답답한 아이들이다. 취약군 아이 중 많은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참여자 3)

타시도 보다 앞서서 충남에서는 모든 아동 거주시설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13개의 시설 중 3개의 시설은 아동심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시설이 근린 지역과 떨어진 오지에 있기 때문이다. 3개 시설의 아동들은 임상심리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시설의 아동들은 도시에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임상심리사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치료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하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치료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5)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설장들의 인터뷰 분석을 보면, 2016년까지 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이후 폐지되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연가 참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예전처럼 부활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단순 참가 보다는 보다 응용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아쉽다. 아동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6000만원 정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아동이 중복해서 가는 것은 도에서 싫어한다. 작년에 갔던 아이가 또 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참여자 2)

본 연구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도나 시설의 입장에서 기획하지 말고, 시설 아동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부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동들이 인터넷, 전문가, 선배, 관련 자료 등의 도움을 받아 스케줄을 잡고, 견학지를 접촉하며, 여행사를 선택하는 등 일련이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6)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

퇴소 아동들은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해 왔다. 참여를 잘 안했다.

> 협회에서 이렇게 하여도 아이들은 호응이 별로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당장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 참석률이 많이 떨어진다. (A참여자 1)

퇴소 이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 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다.

> 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 지루한 프로그램이었으나 퇴소 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요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만족을 느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잘 하였다고 생각한다. (C참여자 3)

따라서 퇴소한 아동이 시설의 프로그램에 재 참가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퇴소 아동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퇴소 아동이 재교육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다면 입소해 있는 아동들에게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아동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아동 또한 자립을 위해 무언가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 현재 취득한 자격증은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실제 취업은 전공과 상관없는 쪽에 취업을 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C참여자 1)

> 제과·제빵 기능사, 케이크디자이너, 조경기능사 자격이 있다. 이런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C참여자 4)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의 지원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퇴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평생 교육기관, 대학의 평생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대상자별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유형 분류

구분		서비스제공자(A)	입소아동(B)	퇴소아동(C)
사회적 지원 활성화	지지체계 강화	◎	○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
경제적 지원 활성화	재정관리 교육 강화		◎	◎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처리		○	◎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		◎

주 : ◎ 2개 이상, ○ 1개, × 없음

Ⅵ. 결론 및 제언

아동복지시설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정과 같은 양육환경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섬세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이다. 즉, 아동학대나 가정문제 그리고 베이비 박스를 통해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또는 가족 그리고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시설이 보호아동의 종착지가 아니며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더

욱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기의 부적절한 환경은 이후 발달단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내 아동은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핍이 아동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적 지원 활성화 측면에서 지지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맨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이다. 사실 시설퇴소아동은 자체적인 자조모임이 부재하고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하다. 퇴소아동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퇴소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서적,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퇴소이후 촘촘한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퇴소아동 자신 스스로가 돈 관리에 대한 인식과 기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진로장벽을 낮추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의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등이다. 퇴소아동의 경우, 법적 지원종결이후 지원할 단체나 대변할 사회복지기관이 부재하다. 입소했던 시설과의 연계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 후 자립생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책임있는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존중과 인권보장의 원리에 기초한 아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지도와 치료, 재활, 훈련 등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운영의 패러다임이 개별 아동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개별적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화 전략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보호받는 아동이 시설병이라고 하는 낙인감과 집단 성장, 교육, 보호 시스템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현아・신혜령・박은미(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30권, pp. 41-67.

국민권익위원회(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6.1.25. 의결(의안번호 제2016-136호).

김연명 외(2007), 아동발달계좌(CDA)제도 및 사업확대 방안,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

김영아(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203-212.

김예성・이경상(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42), 2015.4,pp.7-32.

김태성・손병돈(2016),『빈곤론』, 형지사.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제4권, pp. 85-112.

배주미・김영화・김범구・정익중(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22(3), 2011.8,pp.69-96.

변숙영(2013), 시설 아동의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 소년보호연구(22), 2013. 6, pp.259-283.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1),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복지사업 지원계획.

_____(2016),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2017).

신혜령・박은미・강현아・이현주・한규제・김경희(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유영림・양영미・박미현(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제19권제3호, pp.509-550.

이경상 외(2008),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Ⅶ: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경상(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2011.10 pp.341-362.

이두호 외(1991), 『빈곤론』, 한림과학 총서.

이용환(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15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15), 2003.6, pp.115-136.

이혜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2017).

장혜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57), 2017.3 pp.9-42.

정문진・김수정(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6; 42(1), pp.177-207.

정선욱(2010),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청소년학연구』17(2): 233-252.

정익중(2007), 미국 요보호아동의 퇴소후 자립관련 프로그램과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제13권, pp. 35-52.

조규필・정경은(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23(3), 2016. 3, pp.267-292.

진선미・이주연・주보라(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2016 자립지원포럼 보호종결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12. pp.3-53.

최용환(2016), 보호종결 이후 지원기관별 자립서비스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2016 자립지원포럼 보호종결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12. pp.57-75.

충청남도(2018),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충남아동복지협회(2018),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_____(2017),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7), 아동자립지원단 사업성과 및 추진계획안.

황정하・박수지(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24(9), 2017. 9, pp.119-143.

Brooks-Gunn & Duncan,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Vol.7 No2. pp.55-71.

Brooks-Gunn, J., Klebanov, P.K., and Liaw, F. The learning,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995) 17,1/2:251-76.

Cook, R. J.(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 Westat, INC.

Mallucio, A., Krieger, R. & Pine, B. A.(1990). Assessing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ccio, R. Kreiger, &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pp. 72-89).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Nollan, K. A. M., Wolf, D., Ansell, J., Burns, L., Barr, W., Copeland, & Paddock, G.(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Vol. 79 No. 2, pp. 159-176.

RAND, RAND Study Say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Save Money and Benefit Children, Families and Society, 2006 related resources from Karoly, L.A, Kilburn, M.R et al., 2005,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Proven Results, Future Promise, RAND

Sherraden, 1991, Assets and the poor, Armonk, NY:M.E.Sharpe

Abstract

A Study on the programs of supporting for independent life of the children discharged from a child welfare institution : Focusing on the Chungnam area

Lee Jaewan*

This article looks into the problems experienced by the adolescents discharged from a child welfare institution and attempts to explore the ways to help their independent life. The research methods used for the study are such as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research, and especially in-depth interview with care service providers and children in a child welfare institution, let alone the released childre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required are the consolidation of social support systems. we could consider several ways like a development of a mentor-mentee relationship properly designed for child welfare institution and a community, and a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 manual to properly respond for different situations.

Second, some measures needs to be developed to improve their economic circumstance. We could employ such methods as the educational reinforcement of their financial management skills, a introduction of a financial guardian system.

Finally, the study recommends the ways to improve their self-reliance. Those are mainly of the programs the children can use: to list, a incentive-based program participation, a diversification of experience programs.

Key words: child welfare, child welfare institution, children discharged form child welfare institution

[논문투고일: 2018.08.28, 심사일: 1차-2018.11.05 / 2차-2018.11.13, 심사완료일: 2018.11.26]

*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